



사랑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의료인
전문성을 갖춘 책임감 있는 의료인
사회에 봉사하며 존경받는 의료인

이화여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 의과대학 소식지
Ewha Womans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여호와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사 55:8-9)

발행인 : 박혜영 편집인 : 이화영 발행 : 이화여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서울 양천구 목5동 911-1 전화 02-2650-5703~4 팩스 02-2653-8891

제 28 호 < 2011. 6 >

의학전문대학원 · 의과대학 소식

◎ 의학전문대학원, 수시모집 경쟁률 4.57 대 1

이화여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이 6월 14일(화)부터 16일(목)까지 2012학년도 수시모집 인터넷 접수를 실시한 결과, 총 46명 모집에 210명이 지원하여 4.5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박혜영 의학전문대학원장은 “여성 리더십 교육에 큰 역할을 해온 이화의 역량을 바탕으로 한 이화의전원의 장점에 많은 지원자가 공감하고 있다”며 “앞으로 이화의전원 학생들이 우리나라와 국제사회에 봉사하는 여성 지도자로 성장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시모집 1단계 합격자는 오는 7월 27일(수) 이화여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홈페이지(<http://www.ewhamed.ac.kr>)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며, 오는 9월 3일(토)에 심층구술면접 및 필답고사를 실시한 후 10월 5일(수)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 졸업 50주년·30주년 기념 모교방문의 날 행사 개최



5월 31일 이화여자대학교 창립기념일을 맞아 ‘이화의대 졸업 30주년 모교 방문의 날’ 행사를 5월 17일(화) 오후 7시 목동병원 2층 대회의실에서 가졌다. 의과대학동창(30기), 교수,

학생 등 50여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최혜영 교수의 기도로 시작하여 서현숙 의무부총장, 박혜영 의학전문대학원장, 배순희 동창회장, 30주년 동창 현재란 대표의 인사말로 이어졌다. 학교에서 마련한 기념품 전달식과 의학전문대학원 COEM(이화의전원 합창동아리)의 축하 연주 순서도 마련되었다. 이날 행사에서 30회 졸업생들은 장학금 5,300만원을 모교에 기증하였다.

5월 28일(토)에는 신촌 본교에서 졸업 50주년 모교 방문의 날 행사가 있었다. 홍기숙 교수의 기도로 시작한 이 모임에서는 박혜영 의학전문대학원장의 인사말, 조종남 이화여대 총동창회장, 배순희 이화의대 동창회장의 인사말이 차례로 이어졌으며, 이화의대 홍보영상 상영 후 점심식사를 함께 했다. 기념 촬영을 마친 후에는 이화역사관과 박물관 등을 둘러보았다.

모교 방문의 날 행사에 참여한 동



창들은 “학교를 돌아보며 이화여자대학교의 발전과 역사를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하고 느낄 수 있었으며, 후배들의 대학생활을 지켜보며 과거 대학생시절의 아련한 추억과 이화 졸업생이란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10회 동기 모임은 학교발전을 위해 1천 만원을 기증하였다.

◎ 2011년 의전원 2학년 White Coat Ceremony



2011년 4월 1일(금) 김옥길 홀에서 의전원 2학년 학생들의 White Coat Ceremony가 진행되었다. White Coat Ceremony는 임상실습을 앞둔 학생들에게 의사로서의 사명감을 다시금 일깨워 주고 흰 가운을 입혀주는 행사이다. 학부모와 교수, 선·후배가 함께한 이 행사는 한재진 의학교육부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장운재 교목의 기도와 박혜영 의학전문대학원장, 서현숙 의무부총장, 배순희 의대

동창회장의 인사말이 이어졌다. 이어진 착의 순서에서는 서현숙 의무부총장, 박혜영 의전원장, 배순희 의대동창회장, 의과대학과 의료원 보직 교수들의 엄숙한 분위기 가운데 의전원 2학년 학생 72명 전원에게 흰 가운을 입혀 주었으며, 이지수 임상교무부장이 새로 발급된 병원 신분증을 전달했다. 가운을 입은 학생들은 다 같이 ‘학생의사윤리선언문’을 낭독하면서 의사가 되기 위한 길에 들어서는 다짐을 새로이 하였다. 이후 ‘의사의 길’이라는 주제로 이순남 전임 학장의 강연이 진행되었고, 각 임상 교실 주임교수 소개가 이어졌다. 교가와 축도를 끝으로 White Coat Ceremony가 마무리되었으며, 의전원 1학년 학생들이 선배들에게 축하를 선사하였다.



◎ 임상술기종합 실시

2011년 의전원 4학년 임상술기종합이 5월 16일(월)~20일(금), 5일간 의학관 B동 4학년 강의실 및 EMSC & PBL room에서 시행되었다. 올해부터 시작된 이 수업은 의사국가고시 수기문항들을 집중 강의하고 학생들이 직접 실습해 볼 수 있게 하였다. 수업 마지막 날에는 총 83명의 학생이 4명씩 조를 이루어 Spot Check로 시험을 치렀다.

◎ 소셜 & 스마트 러닝 세미나 실시

지난 5월 17일(화) 의학관 A동 212호에서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들을 대상으로 '소셜 & 스마트 러닝' 세미나가 진행되었다. 이화교수학습센터 주최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는 총 36명의 교수가 참가하여, 소셜 & 스마트 러닝에 대한 개념과 기능을 배우고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 라오스 University of Health Sciences 교수단 방문

2011년 6월 6일(일) 라오스 University of Health Sciences의 Sing Menorath (부총장), Bouthavong Phengsisomboun(생리학 교수)가 본교를 방문하였다. 본교 의전원의 역사, 교육과정, 교육방향에 대한 발표와 논의가 이화의학시물레이션센터(EMSC)에서 진행되었으며 Simman, Simbaby, Monitoring & AV system, OSCE모형 등을 견학하였다.



◎ 신입 교원 워크숍

2011년 5월 6일(금) 의학관 B동 8층 EMSC에서 신입 교원 워크숍이 진행되었다. 이번 신입 교원 워크숍에는 7명의 신입 교원들이 참가하였으며, 이화의학전원의 역사(박혜영 의전원장), 의전원의 교과과정 및 학습목표 개발(한재진교수), 교수업적평가(서석효교수), 임상시험센터소개(김경효교수), 기초통계특강(박혜숙교수) 순으로 진행되었다.

◎ 제 27차 의학교육 학술대회 참가

2011년 6월 9일(목)~6월 11일(토)까지 3일 동안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한국의학교육의 성찰과 나아갈 길(Medical Education: Reflection and Reform)'이라는 주제로 '제 27차 의학교육 학술대회 및 워크숍'이 개최되었다. 학회 둘째날에는 본교 의학교육학교실의 유동미 연구원이 '일개 의학전문대학원의 포트폴리오 평가에서의 신뢰도 분석'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였다. 마지막 날에는 한재진교수가 '외국의 Global Role of Doctor in Healthcare'의 좌장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최금자교수(외과)가 인당학술상을 시상하였으며, 박혜영 의전원장 외 총 11명이 참가하였다.

◎ M1, M2 SPI 시행

의전원 1학년(2011년 5월 7일~6월 13일)과 2학년생(2011년 3월 8일~4월 8일)을 대상으로 일대일 SPI (Standard Patient Instructor) 과정을 시행하였다. 위 과정은 면담을 통해 의료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환자의 질병 외적 요인을 알아내어 환자-의사 관계성을 높이며, 문진의 전 과정을 모두 수행함으로써 CPX(임상진료수행시험)에 대한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실제 모의환자와의 면담을 통해 CPX에 필요한 기본 소양을 기르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 서남병원 직원 심폐소생술 교육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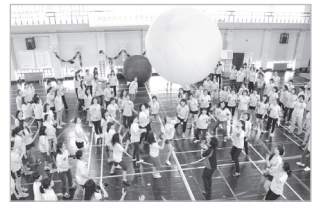
2011년 5월 12일(목) EMSC에서는 2011년 5월 개원한 서남병원 직원(의료인 30명, 일반인 31명)을 대상으로 모형 및 강사 지원을 통해 심폐소생술 교육을 지원하였다.

학생 및 교수 소식

[학/생/ 소/식]

* 2011년도 Ewha medical student's Training Day

2011년 6월 4일 이대 본교 학관 레크리에이션홀에서 이화 의전원 체육대회가 열렸다. 레크리에이션 강사와 함께 진행된 이번 체육대회는 애드벌룬 배구와 2인 3각 릴레이, 댄스 경연 대회를 통해 단합을 기르고, 숨겨져 있던 다양한 끼를 발산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조인호 교수님과 최수승 교수님이 참여하여 학생들과 함께 다양한 게임을 즐기며 자리를 빛냈다. 식사 후에는 짝 피구를 통해 선후배간의 끈끈한 정을 다졌고, 일반 피구 경기를 함께 진행해 각자의 운동실력을 뽐내기도 하였다. 마지막 프로그램으로 진행된 릴레이 경보에서는 마지막 주자인 2학년 박지은 학생이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어 응원하던 학생들을 열광하게 했다.



1년에 한 번 진행되는 이화 의전원 체육대회는 서로의 숨겨진 모습을 발견하고 의전원 학생들을 하나로 엮어주는 이화의전원의 전통으로, 올해의 체육대회 역시 이러한 의미를 되돌아 볼 수 있게 하는 뜻 깊은 행사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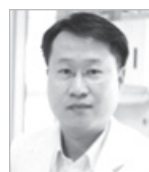
[교/수/ 소/식]

* 최금자 교수, 의학교육학술대회에서 제15회 '인당의학교육대상' 수상



외과학교실 최금자 교수가 제15회 '인당의학교육대상'을 수상(2011. 6. 10) 하였다. 의학교육학회에서 수여하는 이 상은 의학교육발전에 공이 크거나, 의학교육 학술 업적이 뛰어난 의학교육자에게 수여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의학교육 발전을 도모하는데 뜻을 두고 있다. 최금자 교수는 "과분한 상을 받았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의학의 의학 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싶다"는 수상 소감을 밝혔다.

* 권기환 교수, 25억 연구 지원금 수혜



내과학교실 권기환 교수가 '혈관형성 후 재협착 억제 신기술 개발'이란 주제의 연구로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의 '미래기술기반사업, 의학-첨단과학기술융합 원천기술개발' 지원 대상 과제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향후 5년간 25억 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게 되었다. 권기환 교수는 이 지원금을 활용해 동맥경화증에 의한 혈관협착과 혈관성형술 및 스텐트 삽입술 이후 혈관재협착을 일으키는 특정 유전자를 선별하고 치료기술 개발을 가속화 할 수 있게 되었다.

의료원 동정

◆ '이화여자대학교의료원'이 운영하는 '서남병원' 개원

지난 1월 31일 준공을 완료한 서울특별시 서남병원(원장 : 유권)은 서울시의 시립병원 기능보강 사업계획에 따라, 서남권 공공의료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자 설립되었다. 총 350병상 규모로 건립되었으며, 오는 5월 27일에 첫 진료를 시작하였다.

병원규모는 부지면적 11,189㎡, 지하4층·지상8층, 연면적 39,262㎡이며, 최신의료장비와 태양광 발전설비를 구비한 친환경적인 건물로 양천구와 강서구를 비롯해 영등포구, 구로구 등 서울 서남권 지역 공공 의료서비스 개선에 획기적인 전환점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된다.



유권 서남병원장은 “서남병원 모든 직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는 훌륭한 병원을 탄생시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격려가 더해진다면 더욱 좋은 병원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며 앞으로 서남병원의 탄생과 성장에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는 당부의 말을 전했다.

◆ 여성암전문병원장에 백남선 前 건국대학교 병원장 임명

이화의료원(의료원장 : 서현숙)은 5월 1일부로 이대여성암전문병원 병원장에 유방암 치료 분야의 권위자인 백남선 前 건국대학교병원장을 임명했다.



백남선 신임 원장은 1973년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미국 메모리얼 슬로언 케터링 암센터 연수, 일본 국립암센터 초빙 연구원을 거쳐 원자력병원에서 유방암, 갑상선암, 위암의 치료와 연구에 매진해오다 지난 2008년 건국대학교병원으로 자리를 옮겨 건국대학교병원장, 유방암센터 소장을 지냈으며, 현재 대한임상암예방학회 이사장, 대한암협회 부회장 등으로 일하고 있다.

2009년 3월 개원 후 짧은 기간 안에 국내 여성암 대표 브랜드로 성장해온 이대여성암전문병원은 백남선 교수를 영입함으로써 향후 국내 여성암 치료 대표병원으로서 입지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글로벌 여성암 전문 병원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 이대목동병원 차세대 소아응급의료센터 개소

지난 4월 보건복지부가 공모한 ‘소아전용 응급실 모델 구축사업’ 지원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이대목동병원은 지난 5월 30일 이대목동병원 대회의실에서 차세대 소아응급의료센터 개소식을 가졌다.

이날 개소식에는 최원영 보건복지부 차관을 비롯한 100여명이 소아응급의료센터 테이프 컷팅식과 헌판제막식에 참석하였다.

이미 2005년부터 별도의 독립공간에서 소아 전용 응급실을 운영하며 응급 소아 환자에 대한 양질의 진료 서비스를 펼쳐 온 이대목동병원은 이번에 새롭게 단장한 소아응급의료센터내에 소아 예진실, 격리실, 관찰병실, 중증 응급 환자 구역 등의 전문 의료시설과 심장초음파기, 소아응급 랩 시스템, 환자 생체 감시 장치 등의 소아 전용 진료 및 검사 장비를 갖추었다. 소아과 의사와 전문의가 24시간 진료하는 소아 전담 인력 체계를 구축했으며 가벼운 증상의 환아들이 최단 시간 내에 진료를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외래응급실(Fast Track)과 감염 예방을 위한 격리 시설 및 수유실 등의 편의시설을 확충했다.

김경호 소아청소년과 과장은 “전문 의료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소아과 의사와 전문의가 1년 365일 24시간 진료하는 소아응급의료센터는 의료서비스 수준을 한 차원 끌어올려 치료 성공률을 높이고 합병증을 최소화했다”면서 “외래응급실과 중증도 분류에 따른 빠른 진료로 소아 환자의 응급실 체류시간을 단축시켜 환자와 보호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퇴임인사

오는 8월에는 이화여대의 기초의학 발전에 큰 공헌을 하신 두 분 교수의 퇴임이 예정되어 있다. 누구보다 이화를 사랑하며, 기초의학 분야의 발전에 이바지하신 두 분을 만나 퇴임 소감과 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박혜경 교수님)

1. 곧 퇴임하시는데 소감이 어떠신지요? 아직도 실함에 열심히시라고 들었습니다.

시원섭섭하다. 76년 3월에 부임하고 벌써 35년 5개월째다. 실험하면서 눈을 흑사시켜왔는데 이제 그만두게 되다니 시원하면서도 서운한 마음이다.



2. 오랜 시간 이화에 계셨는데 퇴임을 앞두고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인가요?

아무래도 신촌 캠퍼스에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신촌 캠퍼스에 대한 기억이 많다. 데모가 많던 86년에 교학과장을 하고 있었는데 출근하면 학생들 쫓아다니느라 바빴다. 삼엄한 사회 분위기에서 혹시 이대 학생들이 다치게 될까봐 온 신촌을 뛰어다녔다. 나중엔 학교에서 더 열심히 뛰어다니라고 운동화를 두 켤레나 주었다(웃음).

3. 미생물학을 전공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지요? 오랫동안 미생물학자로 연구하신 소감은 어떠하신가요?

어릴 때 감염성 질환을 앓았던 기억이 미생물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 소아과 의사이셨던 아버지는 해방 전후로 환자를 정말 많이 보셨다.

그 당시 우리나라에서 소아환자를 가장 많이 치료했다고 말씀 하시곤 했다. 환자를 보는 일이 고되셨던지 딸인 나에게는 기초의학학을 권하셨다. 딸을 생각하는 아버지의 마음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연구가 편한 것은 아니었다. 그때만 해도 기초의학학을 연구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많지 않았던 시기였고 1971년 당시 여자는 내가 유일했다.

학교에서도 기초분야에 대한 지원이 너무 열악했었다. 17년간 미생물학 분야 교수가 나 하나였을 정도였다. 기초의학은 임상학문의 토대이다. 좋은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기초 연구자들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젊은 학생들이 기초의학학을 기피하는 것에 대하여 학교도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4. 학생들에게 해주실 말씀은?

열심히 공부하라는 말을 하고 싶다. 의사는 전문직식이 필요한 직업이고 그를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 공부하는 것이 왕도라고 생각한다. 언젠가 중국 소년들이 체조 하는 모습을 보고 ‘어쩔 저렇게 가벼운 몸짓이 나올까’ 감탄했던 적이 있다. 그 때 60즈음이었던 내가 깨달은 것은 노력만이 살길이라는 것이었다. 꾸준함과 노력만이 학생들을 전문인으로 만들어줄 것이다.

5.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퇴임 후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화 부속 중학교를 시작으로 이후 44년간 이화 캠퍼스에 머물렀다. 이쯤 되면 운명이라는 생각이 든다. 하느님의 축복 속에서 이화에 머물게 된 것은 내 인생에서 큰 행운이다. 15년 간 대학원생들과 함께 점심시간 성경공부를 할 수 있어서 너무 고맙고 즐거웠다. 퇴임 이후에는 이화에서 보낸 세월을 감사하면서 더 많은 것을 보고 느낄 수 있도록 건문을 넓히고, 공부도 더 하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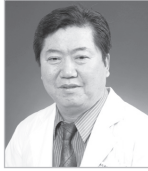
- 1971. 2.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 졸업
- 1976. 3.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 전임강사 임용

- 1977. 8. 서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미생물학전공 의학 박사
- 1978. 3. 이화여자대학교 의학과 미생물학교실 주임교수 서리
- 1983. 9.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교학과장 및 의예과장
- 1985. 9.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교학과장 및 의예과장 중임
- 1991. 9.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교학과장

[한운섭교수님]

1. 곧 학교를 떠나게 되는데 소감이 어떠신지요?

감개무량하다. 건강하고 즐겁게 지낼 수 있어서 고마웠고 학생들과 함께 한 보람된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퇴임을 앞둔 1980년대에 신촌 캠퍼스에 있던 생각이 많이 난다. 환경이 열악해서 겨울에는 너무 추웠고, 난방도 잘 되지 않아 교수실 창에 비닐을 씌우고 연탄을 피웠었다. 늘 아침에 피우던 연탄가스 냄새가 생각난다. 그래도 그 시절의 추억이 아름답다. 빼그덕거리는 마룻바닥에 전통과 궁지가 느껴졌었고 동료 교수들과의 교류도 기억에 남는다.



2. 의과대학장을 지내시면서 의대에 많은 공헌을 하셨다.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신가요?

이화에 오면서 내가 계획한 것이 두 가지가 있었다. 하나는 병원에 병리과를 세팅하는 것과 자체우수인력개발에 노력하자는 것이다. 당시에 유수 의대에는 모두 있던 병리과가 이화에는 없었다. 병리과가 있어야 학교와 병원의 위상이 더 단단해 질 것이라고 보아서 임상병리과 과장으로 있을 때 병리과를 분리해 병리과 전공의를 뽑았었다. 또 이화의 학생들을 통해 이화의대를 발전시키고 싶었다. 이화의 교육을 통해 자체 우수 인력을 개발하고 관리해 이 학생들이 다시 이화의 교육을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게 하기위해 후학들에게 늘 관심을 두고 지원해 왔다.

3. 어떻게 병리학을 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세포의 색과 아름다움이 좋아서 병리학을 시작했다. 옛날엔 X-ray에 까만색만 나왔는데 그에 비해 세포에서는 총천연색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었다. 연구를 하면 할수록 세포 안에 우주가 있다는 것을 배운다. 예전의 병리는 질병에 대한 최종 판단을 하는 법전의 판사와 같은 역할을 했었다. 이러한 점들에 끌려 병리학을 시작했다. 지금도 병리는 임상 의학의 토대를 제공하면서도 융합학문의 대표적인 분야이다. 학생들의 관심, 연구자의 열정, 학교의 지원이 모두 필요한 학문이라고 생각한다.

4. 학생들에게 해주실 말씀은?

열심히 공부해라. 타교와의 교류를 잘 쌓아서 건전한 인맥을 형성해라. 건강해라! 이 세 가지는 꼭 부탁하고 싶다.

- 1971. 2. 연세대학교 의예과 및 의과대학 졸업
- 1980. 2.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박사
- 1980. 9.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 조교수 임용
- 1988. 9.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교학과장
- 1991. 3.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병리학교실 주임교수
- 1993. 9.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교학과장
- 1998. 8.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장
- 2003. 8.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의과학연구소장
- 2004. 8.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장

대외협력위원회 소식

의학전문대학원 발전기금 모금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학전문대학원 발전기금 외에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국제교류장학기금, 글로벌인재육성기금, 각 교실 기금 등 다양한 형태의 기금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의과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을 위해 많은 후원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장학기금 등 약정현황]

기금명	약정액
〈의과대학동창회(30기)장학금〉 신해림 현재란 김선연, 김미경, 김미혜, 김영화, 김용화, 김자예, 김현화, 노재경, 박미숙, 박순복, 박은희, 배은경, 백애란, 성시열, 성인영, 양정희, 유정애, 유정옥, 이경숙, 이내숙, 이신숙, 이영숙, 이영식, 이옥열, 이정희, 정미은, 정성민, 정수경, 정재선, 조치자, 홍경희	20,000,000 2,000,000 31,000,000 (각 1,000,000원)
〈의과대학동창회 장학금〉 배순희 조종남 김태임 최보원 김화숙 우경숙 양정희	20,000,000 10,000,000 6,000,000 6,000,000 3,000,000 3,000,000 2,000,000
〈이화사랑장학금〉 하영식 이해순	10,000,000 1,624,495
〈졸업50주년기념장학금〉 강지용, 권태희, 김복순, 김순애, 김진희, 백인수, 안영순, 오세민, 이점인, 이정자, 이종숙, 이종원, 이창학, 주인명, 홍인옥	10,000,000 (각 667,000원)
〈선배라면장학금〉 김승철 백희정 우복희 이경자 문혜성 서승리 박성희 오지은	4,800,000 1,200,000 1,000,000 960,000 840,000 480,000 480,000 480,000
계	134,864,495

[발전기금 등 약정현황]

기금명	후원자	약정액
의대기숙사신축기금	조정실	50,000,000
의대연구기금	이화국제재단	21,381,577
의과대학사랑실천기금	김재광	2,000,000
소아과학교실기금	변혜란	1,350,000
내과학교실발전기금	김현숙	1,000,000
소아과학교실기금	이수정	1,000,000
계		76,731,577

알/림/니/다

✚소식지 원고 모집

- 의학전문대학원 · 의과대학 소식지는 분기별 (3/6/9/12월) 발행되며, 소식지 원고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jkkim9999@ewha.ac.kr)
- 소식지 내용은 의학전문대학원 · 의과대학 홈페이지(<http://www.ewhamed.ac.kr>) 내 학교소개/뉴스레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동창 주소 변경 문의
(이화의대 동창회 사무실 TEL. 02) 2650-5782)